

## 세계 민족 헤드드레스 유형의 지역별 분류

유태순 · 김지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 Geographical Classification of the World Folk Headdress Types

Tai-Soon Yoo and Jee-Hee Kim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Kyungsan, Korea

**Abstract :** Headdress which adorns the head has been used not only as a type of dress but also as a vehicle to express the human's mentality and a tool to convey idea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type of headdress observed in the world folk costumes and investigates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aims to examine how the types of headdress are inter-related to the peoples' natural environments, way of life and cultural background such as religion and aesthetic, ethical standards. Headdress used as important elements of many peoples' folk costumes can be categorized into scarf-type, hat-type and adornment-type. Veil-type, the one of scarf-types, was developed in Southwestern Asia and Arabic Africa influenced by natural and religious factors. This type is more simplified in Turkey and Eastern Europe and only covers head and neck in the former and only head in the latter while also being called 'headkerchief-type'. Hat-type is observed in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dornment-type has been used to symbolized one's noble social status and authority in societies dominated by shamanistic cultural background; it was also used in Far East out of the motivation to fulfil one's aesthetic desire. Headdress though it was originally made from the identical purpose of wearing, has developed into the various types affected by each people's natural environments, emotion and ways of life.

**Key words :** headdress, scarf-type, hat-type, adornment-type

## 1. 서 론

머리는 인간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그 신체적 의의나 상징적 의미로서 중요시 여겨져 왔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또한 머리 위로 펼쳐진 무한의 공간은 인간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하고 머리를 장식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헤드드레스(headress)이다. 헤드드레스는 머리부분을 덮는 것의 총칭으로 머리를 묶거나 올릴 때 쓰이는 부속품과 머리장식 같은 머리에 대한 모든 물건 즉, 모자나 코이프(coif), 후드(hood)는 물론 가발, 헤어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다.

헤드드레스는 여러가지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한 복식의 한 형태로 착용되어져 왔으며,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산물임과 동시에 헤드드레스를 착용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출하는 수단이며 강한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민족의 상에 착용된 헤드드레스는 크기나 형태, 색상, 착용방법 등에 의해 민족의 민족성이나 생활양식, 관습, 지역의 특징, 종교 등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 민족의 헤드드레스를 형태, 색상, 착용방법 등에 의해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들의 지역적 분포를 알아보고, 헤드드레스의 유형과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양식, 종교, 미적·도덕적 기준과의 연관성을 추론해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각종 문헌자료와 사진, 그림 등을 토대로 하여 헤드드레스의 형태와 착용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세계 각 민족의 헤드드레스는 민족의상에 나타난 헤드드레스로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 2. 헤드드레스의 착용동기

### 2.1. 보호의 목적

인체의 가장 민감하고 공격 받기 쉬운 부분들은 항상 어떠한 보호의 형태가 요구되어 졌으며, 헤드드레스가 발생하게 된 1차적인 동기도 중요한 기관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머리를 외계의 여러가지 장애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열대나 한대에 한하지 않고 세계 어디를 가도 이에 대응하는 여러가지의 쓰는 것이 발달하고 있으며, 기후는 모자의 형을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시베리아같은 한대지역에서는 양피나 기타 모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온의 지역에서는 챙이 넓은 모자가 필수적이었다. 페르시아에서는 작은 펠트모를 사용하여 얼굴에 그늘이 지도록 하였으나 이것은 목까지는 보호하지 못하였으므로 헤드스카프를 머리 위에 드리우고 그 위에 모자를 착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헤드드레스를 이용하여 머리와 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나 눈에 젖는 것은 위생적으로 장애가 오고 불쾌하므로 손에 드는 우산 같은 것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머리 위에 고정시킨 것이 갓으로, 다우성 습윤기후의 지방에서는 주로 잎, 나뭇껍질, 풀 같은 식물로 만들어진 갓 형태의 헤드드레스를 상용하게 되었다.

머리 보호 목적의 또 한가지는 외부의 물체에 의한 머리의 상해방지이다. 머리 위에 큰 물단지나 바구니를 얹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납작한 머리 갓개를 머리 위에 놓아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2. 신분 및 위엄의 상징

일반적으로 복식은 입고 있는 사람을 상징할 수 있으며 그 상징성을 더욱 더 아름답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머리를 장식하는 모든 것들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와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헤드드레스를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헤드드레스는 착용자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게 되었고, 종족의 우두머리와 일반 사람들은 서로 다른 헤드드레스를 착용함으로써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여러 문화권에서는 신분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헤드드레스와 착용할 수 없는 헤드드레스를 명확히 구분지어 엄격하게 시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새의 깃털은 머리장식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권위 뿐 아니라 용기와 계급의 표시로서 깃털을 사용하였다. 태평양연안의 종족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사는 여러 인디언 부족들도 깃털로 만든 헤드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깃털 장식은 종족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종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헤드드레스를 신분과 계급의 상징으로 착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깃털 장식 헤드드레스는 후광효과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것은 상대에게 공포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목적도 포함되어있어, 헤드드레스를 통한 신분의 표시와 함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아라비아의 남자는 카피예(kaffiyeh)라고 하는 천조각을 비틀어 말아올려서 아라비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티벳의 라마교에서는 2대 종파를 모자의 색으로 구별하기도 하는 등 헤드드레스를 통한 신분의 상징과 위엄의 표현은 고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의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3. 의례적 목적

의례적 목적으로 헤드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은 종교적인 면

과 깊은 연관을 가진 것으로, 기독교에서는 의상과 여성들의 머리 노출에 관한 법규가 있었으며 특히 교회에서 금해야 하는 의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들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베일을 착용하도록 요구되어 졌으며, 이것은 헤드스카프의 일반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트만제국의 영향을 받은 발칸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베일이나 터키식의 베일을 착용하는 관습을 받아들였으며 터번, 페즈(fez) 또는 머리에 두른 카피에는 회교도를 신봉하는 남성들에 의해 착용되었으며, 이것은 기후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례적 목적으로 헤드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은 특히 남녀의 격리관습이 엄격한 사회에서 나타나며 이슬람 문화권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사회의 성에 관한 태도가 폐쇄적일수록 의복의 신체를 가리는 정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남성우위의 사회에서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독점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욕구는 종교 또는 도덕적으로 여성의 성적인 모든 가능한 접촉을 차단하였고 전신을 감싸는 의복, 특히 얼굴까지 가리우는 의복을 의례적인 목적, 정숙성의 표현으로 장려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의례용 의식에 착용되기도 하여 종교적 의식이나 결혼, 상중에 베일을 착용하는 것은 비교적 널리 퍼져있는 풍속이다. 또한 의례적인 목적으로 헤드드레스를 착용하는 방법은 각 민족마다 차이를 보여 예베소에 들어갈 때 유대교인은 모자를 쓰고 기독교인은 모자를 벗는 것과 같이 서로 상반된 착용상태가 의례적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다.

## 2.4. 미적 요구

인류가 복식을 착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인간의 자기도취증(narcissism) 즉,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장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복식착용의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동기로 보고 있다.

특히 머리부분은 실용적인 목적이 완전히 배제된 채 단순히 미적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식이 가능한 인간신체의 유일한 부위라고 볼 수 있다. 머리는 인체의 상방에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식하는 욕구는 미개·문명사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머리에 장식을 쓰거나 머리카락을 장식하여 모양을 내는 것은 세계의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머리장식의 심미성은 여인들의 과장된 머리형태나 화려한 장식을 붙인 헤드드레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모든 헤드드레스 착용동기의 저변에는 이 미적인 욕구가 깔려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여러 부족들은 깃털로 만든 아름다운 헤드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신분이나 위엄, 권위의 상징일 뿐 아니라 머리부분을 미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종교적·도덕적 관습에 의해 얼굴을 모두 가리는 헤드드레스의 착용이 불가피한 아랍지역의 폐쇄된 문화권의 여성들도 자신들이 착용하는 차도르에 레이스나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적인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볼 때 미적욕구의 충족은 헤드드레스 착용의 기본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3. 헤드드레스의 유형별 분류

#### 3.1. 스카프형

**헤드커치프(head kerchief)** : 커치프(kerchief)는 여성이 머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각형의 형질을 말하는 것으로 헤드커치프는 보자기형의 머리쓰개를 의미하며 여자가 머리에 쓰고 그 끝을 턱 밑에 매는 헤드드레스의 형태이다.

헤드커치프형의 헤드드레스는 스카프 한 가지의 형태로도 쓰이지만 다른 형태의 헤드드레스와 함께 착용되기도 하여 보닛이나 캡형의 헤드드레스 위에 스카프를 메기도 하고, 헤드스카프를 머리 위에 드리우고 그 위에 모자를 착용하기도 한다. 또 두 장 이상의 스카프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독일의 스프레발트(Spreewald)지방의 여성의 헤드드레스는 커다란 라파(lapa)라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큰 장방형의 실크나 면 스카프와 두개의 조금 더 작은 스카프로 만든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여성이 쓰는 헤드드레스는 '카프레'로 이 헤드드레스의 형태는 가장 원시적이어서 그 기원은 14세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흰 목면 보닛 위에 쓰는 형태이며 차가운 안개와 습기를 막기위해 계곡의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필수품이었다.

터어키 여성이 착용하는 커치프형의 헤드드레스는 안면은 드러낸 채 머리부터 목둘레를 가리는 형태로 착용되며, 이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서아시아, 아랍아프리카 등의 타 이슬람국가에서는 얼굴을 모두 가리는 베일 형태로 존재하는 헤드드레스가 유럽으로 진행되면서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로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헤드커치프형의 헤드드레스는 세계의 민속의상에서 많이 착용되어 왔으며 특히 터어키, 유고슬라비아나,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의 유럽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베일(veil)** : 얼굴이나 머리를 덮는 천으로 은폐, 보호, 장식 등의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아라비아인의 민속의상으로 하이크라고 불리는 것, 이슬람교도의 여성이 얼굴을 가리는 야쉬맥 등이 이 베일형의 헤드드레스에 해당된다.

베일형의 헤드드레스가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로 이 지역의 건조한 사막성 기후와 스텝성 기후,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인종, 문화 등의 복합적 요소에 의해 베일형의 헤드드레스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조하고 일사가 강하며 고온인 이 지역에서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신은폐형의 의복과 함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헤드드레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집트의 베드윈 여성들은 머리에 한 겹 이상의 베일을 쓰는데 이것은 먼지를 막고 여름철에는 강한 태양으로부터, 또 겨

울에는 냉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특히 기혼녀들은 눈만 내놓은 목면처럼 생긴 브루가(bruga)에 그들의 지참금을 동전과 장식으로 달아 꾸몄으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동전을 달았다. 이것은 또한 베일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또 착용자가 밖을 볼 수 있도록 눈 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얇은 레이스나 그물로 처리 된 루밴드(ru-band)라는 것도 나타난다.

이란의 여성들이 쓰는 헤드드레스는 차도르(char-dor)라는 말로 이것은 머리 위에 쓰며, 몸 주위로 늘어뜨려 필요할 때는 얼굴에 접촉하도록 당긴다. 이 차도르의 흔적은 동아시아지역 우이굴족 여성들이 갈색으로 짙은 천을 머리에서부터 쓰고 얼굴을 감춘 채 걷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아라비아의 예멘 여성들이 착용하는 베일은 얼굴을 감춘다는 목적을 위해 양 눈 부분만을 뚫고 다른 부분은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를 두건에 붙여서 머리부터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마, 눈, 코, 뺨 부분에는 장식을 붙여서 꾸미기도 하는 등 얼굴을 감추면서도 멋을 보이려고 하는 반대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베일형 헤드드레스의 착용형태는 이란, 서터키스탄, 터어키를 차례대로 보면, 점점 간략화, 기능화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베일형의 헤드드레스가 이란이나 이집트의 서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갈수록 헤드커치프형의 헤드드레스로 변화되어 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베일형의 헤드드레스는 산악, 고원, 사막 등의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종교적 영향으로 인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쇄된 문화구조 속에서도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스나 자수 장식 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미적욕구의 충족, 부와 신분의 과시, 실용성의 추구라는 복식 착용의 동기를 모두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번(turban)** : 터번은 동양에서 발생한 독특한 스타일로서 마, 견, 목면 등의 스카프를 머리 위에 매듭지어 붙인 것이다. 긴 천을 머리에 둘러 착용하는 형태이며 그 색상이나 두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터번의 크기, 주름, 색은 인종, 직업, 장소에 따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 터번 형의 헤드드레스는 세계 각지의 민속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랍아프리카 등의 사막성 기후지역과 중앙아시아의 남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이 형태의 헤드드레스 역시 기후에 의한 자연적 조건과 함께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인도의 시크(sikhs)지방의 남성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결코 자르지 않는 머리를 덮기 위해 터번을 쓰는 등 터번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착용한다. 터어키에서는 펠트페즈의 헤드드레스 주위에 터번을 묶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 또는 여러 색상으로 되어있는 터번만 쓰기도 하는 등 터번은 터번 하나 만으로, 또는 다른 형태의 헤드드레스와 함께 착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2. 햇(hat)형

**보닛(bonnet)** : 보닛은 뒤에서부터 머리 전체를 싸듯이 가리고 얼굴과 이마만 드러낸 모자의 형태로 크라운이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다. 보닛은 주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헤드드레스의 형태이다.

덴마크에서는 무지의 간단한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기혼여성은 어두운 색을 미혼여성은 흰색을 착용한다. 또한 메데보(Medebo)지방에서는 보닛 위에 유색의 스카프를 매기도 한다. 보닛의 색상에 의해서 미혼과 기혼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체로 레이스가 장식된 수수한 스타일인 경우가 많다.

**햇(hat)** : 챙이 있는 모자의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크라운에 브림이 붙은 것으로 캡과 구분한다. 일반적 의미의 모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형태의 헤드드레스는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분포된 형태로 유럽의 남성들은 대부분 햇 형태의 펠트모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헤드드레스에도 이 형태의 펠트모가 등장한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지방의 관이 평평하고 직선 테두리가 있는 코르도베스 햇(Cordobes hat)은 태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안달루시아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열대이지만 기온이 낮고 우량이 매우 적고 건조하여 상쾌한 가을과 같은 기후를 나타내는 중앙 안데스의 여러 지방에서는 챙이 있는 검은 산고모자나 진한색의 소프트 모자, 하얀 파나마 모자 등 지역과 종족에 따라 가지각색의 햇형의 헤드드레스 형태가 나타난다. 이것은 스페인의 식민정책에 의한 유럽 문화의 영향으로 햇형의 헤드드레스가 전이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며, 안데스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받아 형태에서 변화가 초래되어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유럽의 햇형 펠트모는 대체로 브림이 작고 크라운이 높으며 풍풍 장식을 붙인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햇형의 헤드드레스는 대체로 크라운이 낮으며 깃털을 높이 꽂는 장식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뜨겁고 일사가 강한 자연환경에 대한 방어책임과 동시에 인디오적인 민족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캡(cap)** : 머리모양에 따라 꼭 맞게 된 브림이 없는 형태의 모자로 유럽 각지의 남녀 의상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턱 아래에서 끈으로 매는 모자 형태인 코이프(coif)는 유럽 각 지역 여성의 민족의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로, 레이스나 드르위크로 만들어진 높이 20cm 정도의 헤드드레스이다. 유럽의 남성 헤드드레스에도 캡형의 헤드드레스를 볼 수 있다. 특히 핀란드 남성의 헤드드레스는 꼭대기에 크고 붉은 풍풍을 단 화려한 사방캡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스타킹 캡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또 동아시아 지역의 미얀마, 타이, 중국 등지에서는 챙이 없는 투구 모양의 캡에 금, 은 도금을 하거나 원숭이의 털이나 새의 깃털, 구슬이나 비즈, 술 장식 등으로 치장한 화려한 형태의 캡형 헤드드레스가 착용되기도 한다.

캡형의 헤드드레스는 온대기후를 나타내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서, 신체의 보호나 상징적 의미에 목적을 둔 착용이라기 보다는 미적인 표현이나 지방, 결혼 유무 등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 3.3. 장식형

장식형의 헤드드레스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이나 잘려진 형태, 염색 또는 깃털 등의 장식품을 꽂아 장식의 형태를 나타내는 헤드드레스로, 인디언들이 대부분 예외없이 깃털장식을 한 헤드드레스를 착용하며 또 활이나 화살을 꽂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메리카의 식족, 이오바족, 포니족은 머리를 자르는 관습을 가지며, 머리 윗부분에 말이나 사슴의 아름다운 갈기를 휘감고 독수리의 깃털을 장식하기도 한다. 특히 수우족이나 다코다족이 머리에 두르는 깃털장식은 야생인도 닭이나 꿩의 깃털로 만들어져 있다. 우두머리는 닭이나 꿩 대신에 독수리를 비롯한 맹수의 깃털을 이용함으로써 장식의 목적과 함께 계급의 차이를 표시하기도 하며, 각각의 인디언에 따라서 형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오세아니아의 카니카족 남성들은 가늘고 굽슬거리는 유별나게 진한 머리칼을 조개 장식으로 묶어 다발로 해서 늘어뜨리기도 하고, 석회수에 침투시켜 선명한 적색으로 물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식형의 헤드드레스는 부족 내의 계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또는 자신이 속한 종족에 따라 장식의 형태를 달리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극동 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의 여성들은 머리에 화려한 장식품을 꽂아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장식은 미적욕구의 충족과 함께 형태와 소재의 다양함을 통하여 착용자의 부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식형의 헤드드레스는 신분이나 위엄, 용기의 상징 등 상징적 의미가 강한 형태의 헤드드레스이다.

## 4. 결 론

세계 각국의 민족의상에서 볼 수 있는 헤드드레스는 인종, 지역환경, 생활문화 등에 의해 형태나 색상, 착용방법 등에서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다. 헤드드레스의 유형을 단순한 문화·지리적 경계만으로 구분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민족적 속성, 종교, 그 지역의 자연환경, 이문화와의 동화 등의 제반요소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헤드드레스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헤드드레스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그 전형적인 예를 도출해내는 것은 어렵다.

Table 1은 각 헤드드레스 유형의 분포지역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종교, 문화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며, Fig. 1은 각 지역에 따른 대표적인 헤드드레스 형태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Geographical classification of headdress types

Type	Nation	Climate & natural environment	Religion & culture	Motivation	
Scarf type	Head-ker chief	Eastern Europe (Turkey, Romania, Bulgaria, Czecho, Slovakia, Greece)	Mild climate Continental climate	Christianity Islam Catholic culture	Protection Symbol of religion
	Veil	Arabic Africa (Saudi-Arabia, Iran, Egype, Afghanistan), Western Asia, Middle Asia	Desert-dry climate Steppe Mediterranean and desert region	Islam Full-Lengh type costume	Symbol of modesty
	Turban	Arabic Africa (Morocco, Saudi-Arabia, Afghanistan, Turkey), Middle Asia (India)	Desert-dry climate Tropical monsoon climate	Islam Hindu	Symbol of status
Hat type	Bonnet	Scandinavia (Finland, Sweden, Denmark, Netherlands), Northern Europe (Lapland)	North-polar cold climate	Catholic	Protection
	Hat	Europe (Austria, Hungary, Spain), LatinAmerica (Peru,Colcmbia)	Mediterranean climate Tropical climate Alpine zone	Catholic Maya-Civilization	Protection
	Cap	Europe (France, Belgium, England, Italy) South-Eastern Asia (China, Thailand, Miyanma)	Mediterranean climate Mild climate	Catholic Hindu Buddhism	Protection Aesthetic desire
Adorn-ment type	Adornment	North American Indian, Austrian native, Southern Africa Native, Far East Asia(Korea, Japan)	Continental climate Tropical climate Mild climate	Shamanistic culture Buddhism Confucianism	Symbol of status & authority Aesthetic desire



**Fig. 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headdress types.

세계 민족의 민속의상에 나타난 헤드드레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역적 분포와 자연적, 종교적, 문화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스카프형의 헤드드레스는 비교적 그 형태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 자연적, 종교적 영향에 의해 서남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달한 베일형의 헤드드레스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을 거치며 유럽으로 갈수록 점차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어가며, 동유럽에 이르러서는 헤드커치프형으로 단순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터번형의 헤드드레스는 서아시아, 아랍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여러지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착용되어진다.

둘째, 가장 보편적인 헤드드레스의 형태인 햇형 헤드드레스는 세계 각지의 민속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보닛형은 북유럽의 한랭기후 지역에서, 캡형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온대성기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햇형의 헤드드레스는 유럽에서는 크라운이 높고 브림이 좁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안데스 고원지대의 남미에서는 크라운이 낮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강한 장식성과 상징성으로 대변될 수 있는 장식형의 헤드드레스는 사머니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 원시적 부족 사회의 계급구조와 신분과시적 욕구에 기인하여 보이며, 극 동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장식품을 꽂아 미적욕구의 충족과 동시에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장식형의 헤드드레스는 보다 높은 부위인 머리를 장식함으로서 위엄

과 상징성을 극대화시키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김창준 (1991) "복식사전". 라사라, 서울, pp. 85-87.  
 유태순 (1997) "세계의 민속의상". 홍익출판사, 서울, pp. 12-14, 25-46, 100-118  
 박일록 (1989) "복장문화사". 원광대 출판부, 전주, pp. 207-224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1997) "복식문화" 교문사, 서울, pp. 15  
 의상디자인연구회 (1995) "A Folk Costume". 학문사, 서울, pp. 33-35.  
 조규화 · 금기숙 · 구인숙 (1995) "복식사전". 경춘사, 서울, pp. 689.  
 조은경 (1992) 구소련의 민속의상에 관한 연구-동부 슬라브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나영 (1997) "여성쓰개의 역사". 학연문화사, 서울, pp. 71, 126-128.  
 황춘섭 (1992) 서아프리카 전통 복식문화고찰 I. 복식, 18, 97-107.  
 服裝文化協會 (1969) "服裝大百科事典". 文化出版局, 東京, pp. 270-271.  
 小島 茂 (1986) "世界の衣裳". 朝日新聞社, 東京, pp. 131.  
 大丸 弘 (1982) "着る飾る". 日本交通公社出版局, 東京, pp. 12.  
 服部照子 (1987) "ヨーロッパの生活美術と服飾文化". 原流社, 東京, pp. 15-39.  
 切畑 健 (1985) "日本の女性風俗史". 京都書院, 京都, pp. 113.  
 Beazley M. (1994) "World Dress". Reed Consumer Books, New York, pp. 35, 59, 94, 102, 143.  
 Korean Air (1998) "Morning Calm". 7, pp. 13.  
 Natalia K. and Galina P. (1990) "National Costumes of the Soviet Peoples". Planeta Publisher, Moscow, pp. 63, 77, 102, 127, 160.  
 (1999년 6월 1일 접수)